

### '선택과 집중' 통한 시장 개척 '구슬땀' 국내 최초 베트남 정부 형식승인 획득

#### 하이맥스

지난 1988년 설립 이후 29년 간 소방설비 제조 전문업체로 성장한 하이맥스가 베트남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자사가 개발한 원격점검형 화재 감지 시스템과 비상유도등, 지능형 화재 감지 시스템 등 소방설비 전반에 걸쳐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 지난 2012년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법인인 '하이맥스 비나'를 설립하고 올해로 5년째 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베트남 정부의 형식승인을 받고, 건설현장 곳곳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소방 관련 전시회 등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베트남 보안장비 및 소방기구 전시회와 소방제품 전시회, 건설-건축자재 전시회 등에 해마다 참석함으로써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시장은 아직까지 소방용품에 대한 자국의 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대부분 외국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실정이라는 게 하이맥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시회 참가를 통해 건설사 등에 제품을 알리는 게 좋은 홍보 방안의 일환이 된다는 것.

하이맥스의 높은 기술력은 국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정받고 있다.

하이맥스는 2015년 조달청이 선정하는 G-PASS 기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



을 위해 힘든 점을 인정받은 셈이다. 하이맥스가 소방안전 전기설비, 가천대학교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원격점검형 화재 감지 시스템' 제품은 지난 2015년 조달청의 우수제품에 선정돼 경북도청과 충북경찰청 등 관공서에 상당수 설치된 바 있다.

원격점검형 화재 감지 시스템은 각 가별별 설치된 소방감지기 정보를 하나의 수신기로 보내서 상태를 점검하는 제품이다.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소방감지기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약 8000개의 감지기를 짧은 시간에 모두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이맥스는 최근 ICT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원격으로 전달, 수신기가 없더라도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어디서나 화재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화재정보 공유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건물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공유됐던 화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이맥스의 또 다른 강점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것 뿐 아니라 소방설비 공사 등 시공까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소방설비 설치·시공 등 소방시설 토탈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강원선 하이맥스 사장(사진)은 "하이맥스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베트남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근 들어 소방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하이맥스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열린 보안장비 및 소방기구 전시회에 참가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 무정전공사용 설비·안전장구류 개발 '외길' 한전 필수 보유장비 덮개류 소 제품 국산화

#### 진흥이엔지

지난 1991년 설립된 무정전공사용 설비와 안전장구류 개발에 앞장선 진흥이엔지(대표 김용규·사진)는 26년여 동안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진흥이엔지가 무정전 공사 등 전기공사 용품 분야에서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현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기 때문이다.

진흥이엔지는 지난 2010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나섰다. 지난해 한전 필수 보유장비인 덮개류 전체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해 국내 공사용품 기술력을 한차레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받는 다.

대표적인 제품은 전주덮개와 전주상부덮개다. 기존에는 수입제품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화,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내 배전선로 실정에 알맞은 제품을 개발해냈다는 게 진흥이엔지 측의 설명이다.

전주덮개는 기존 압출성형 대신 블로우성형 공법을 적용했다. 외부에는 물결무늬 형상을 적용해 접지감과 복원력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도 뛰어나다. 여기에 기존 수입품 대비 가격도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

올해도 활발한 개발활동을 펼친 끝에 국내 전기공사 현장의 요구에 발맞춘 제품들을 개발했다.

진흥이엔지는 지난해 무정전 공법 가운데 전선이선 공법이 폐지되고,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으로 대체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신형 무정전 변압기 장치를 지난 2월 출시했다. 이 제품은 바이패스 고압부를 추가로 생성시켜, 바이패스 개폐 기능과 TR 변압기능을 동시



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변압기 내에 고저압 개폐장치를 내장시켰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실수나 순간 이상 전압에 의한 선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이중 차단시스템이 구축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간접할선작업 공법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스틱과 이를 이용한 압축기·절단기도 개발했다.

유압작동식 스마트 압축기와 절단기는 기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구를 그대로 스마트스틱에 접목해 간접할선공법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스틱



진흥이엔지가 개발한 무정전 변압기.

제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 등록을 마친 상태라는 게 진흥이엔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전,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가동케이블 배전용 케이블 클램프, 전력선 외 기타설비에 대한 45kV 급 건축용 방호구, 절연전선 활선 자동 파박기 등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밖에도 무정전 변압기 장치와 케이블 드립 장치, 다목적 전력 공급 장치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윤대원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수원 건물에서 첫 업무 시작(1975년 서울시 공물동)



한국전력기술을 원정설계 전문기관으로 육성을 결정한 정부 문서(1976년)

"열심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자"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이 우리 경제에 근심의 골을 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경제성이 뛰어난 발전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야심찬 도전을 했습니다.

기술자도, 자료도, 자본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 모두는 일하면서 공부하고, 밤을 새워 토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선진국에서 배워보려고 했지만, 기술의 장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하얀 캔버스 위의 선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어느덧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발전소 설계기술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전력기술은 다시 한번, 일하면서 공부했던 우리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생각하며 인류번영의 에너지 청사진을 그려 가겠습니다.

Pathfinder KEPCO E&C | pr@kepc0-enc.com | www.kepc0-enc.com |



## 熱心히 工夫하며 誠實하게 일하자

선배들의 뒤를 이어 인류번영의 청사진을 그려갑니다



### 국내 최초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기관 공정성 최우선 둔 '정도경영' 실현 '박차'

#### KSR인증원

KSR인증원은 한국인증원(KAB) 소속의 전문 인증기관으로 지난 1999년 3월 설립된 뒤 다양한 기업들의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KSR인증원은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HSMS 18001)의 심사와 인증업무로 주로 실시해 왔다. 지난 2000년 품질보증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여러 인증 분야의 시험을 맡으며 전문 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인증원센터로부터 국내 최초의 반부패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기관으로 최근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분야의 인증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게 됐다.

ISO 37001 인증은 ISO 기구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으로 ▲최고경영자의 반부패 경영방침 선언 ▲반부패경영시스템 운영담당자 임명 ▲임직원 교육 등 부패요소를 사전에 근절하는 프로그램 등을 담고 있다.

ISO 37001 인증은 기업이나 사업관계자가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부패방지과 관련된 정책을 ISO 37001 규격에 따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

적으로 알림으로써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한전KPS에 최근 ISO 37001 인증을 실시, 국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선도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국내 ISO 37001 인증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심사자격인증원(KAR)으로부터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인증심사원 연구기관으로도 국내 최초로 지정받았다. 이를 통해 KSR인증원 부설 인제개발원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 분야의 인증심사원 양성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국내 ISO 37001 인증 시장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게 KSR인증원 측의 설명이다.

KSR인증원은 또 지난해 국내 첫 비즈니스연속성(재난안전)경영시스템(ISO 22301)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국내 인증시장에서 영역을 점점 넓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ISO 22301 인증은 재난안전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사적 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이나 재해 등이 발생해도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KSR인증원은 인증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는 생각 아래 ▲인정기준 준수 ▲공평성 확보 ▲투명경영 실현 등 정도경영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겠다는 게 인증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대원 기자